

시작했어. 풀은 낮이 나간 채 발길을 돌려 그대로 항구로 달려갔네. 그는 그곳에서 동틀 무렵 이미 비르지니는 배에 탔고, 그녀가 탄 배는 바로 출항해버려서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. 풀은 집으로 돌아왔고, 어느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농지를 가로질러 갔어.

비록 이 분지를 둘러싼 암벽이 우리 뒤에서는 거의 수직처럼 보이지만, 산마루까지 오르는 길은 저 초록빛 평지로 층층이 나뉘져 있어, 그 계단식 땅을 밟고 뽀뽀 험준한 오솔길을 통하기만 하면 ‘엄지바위’라 불리는, 경사가 심해 사람이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저 원뿔바위 바로 아래까지 닿을 수 있다네. 그 바위 아래 있는 땅은 커다란 나무들로 뒤덮인 평지지만, 땅 자체가 깎아지른 듯 너무 높이 치솟아 있어, 마치 무시무시한 낭떠러지에 둘러싸여 공중에 떠 있는 거대한 숲과 같지. 엄지바위 꼭대기 주변으로 끊임없이 물려드는 구름은 여러 가닥 물줄기를 흘러보내는데, 이 높이에서는 떨어지는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, 저 바위산 뒤쪽에 자리한 골짜기 밑바닥 아주 깊은 곳까지 떨어진다네. 그곳에서는 봉우리가 솟아오른 작은 산지와 더불어 섬 대부분이 보이지. 그중에서도 특히 숲이 빼곡히 들어찬 골짜기들과 함께 피터보스산과 삼유방산이 보이고, 그 건너편으로 보이는 대양과 부르봉 섬은 여기서 서쪽으로 40리외 정도의 거리에 있네. 풀이 비르지니를 데려간 배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높이에서였어. 그는 10리외도 넘게